

제 1 교시

국어 영역

출수형

정답

1	⑤	2	④	3	④	4	①	5	⑤
6	④	7	③	8	②	9	①	10	①
11	③	12	③	13	④	14	②	15	④
16	⑤	17	①						

[1~2] 2014.03B 독서법

1. (가), (나)에 나타나 있는 ‘독서’와 관련된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서는 책을 읽을 때의 마음가짐에 대해 말하고 있다.
→ (가)에서는 책을 읽을 때 마음을 비우고 기운을 가라 앉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책을 읽을 때의 마음가짐에 대해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② (가)에서는 책을 읽을 때는 이치를 분명히 깨닫는 것이 중요함을 말하고 있다.
→ (가)에서는 독서를 함에 있어서 갖는 태도를 말하며 그 태도로 인해 ‘의미가 차분해지고 이치가 명백해져서 받은 실지를 단고 행동에 의거함이 있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즉, 책을 읽을 때, 이치를 깨닫는 것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③ (가)에서는 명성보다는 그 내용의 가치를 수용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
→ (가)에서는 취할 만하면 세속 보통사람의 말이라도 폐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명성보다도 내용의 가치를 수용에 있어서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 ④ (나)에는 책에 나온 성현의 말씀이 바르고 공평하다는 생각이 나타나 있다.
→ (나)에서는 ‘성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르고 공평’하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 ⑤ (나)에는 성현의 말씀을 이해할 때 여러 선유들의 견해를 비교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러나 있다.
→ (나)에서 여러 선유들의 견해에 대해 비교해야 한다는 생각은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2. (나)의 글쓴이가 강조하고 있는 독서 수행 과정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 ① 새로 알게 된 지식이나 정보를 독자 자신의 삶에 활용한다.
→ 새로 알게 된 지식이나 정보를 자신의 삶에 활용해야 한다고 하는 내용은 등장하지 않는다. 공자가 말한 내용은 마음을 쓰는 곳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 장구나 바둑을 가르치고 행하라는 것이 아니었다.
- ② 글에서 자신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 글쓴이는 책을 읽고 풀이함에 있어 그 책이 쓰여진 시대를 살필 뿐, 자신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는 않고 있다.
- ③ 지식과 경험, 표지, 문맥 등을 이용하여 생략된 내용을 추론한다.
→ (나)에서 지식, 경험, 표지, 문맥을 이용하여 생략된 내용을 추론해야 한다는 내용은 등장하지 않는다.
- ④ 글의 배경이 되는 사회 문화적 상황을 고려하여 의미를 파악한다.
→ (나)의 필자는 마지막문장에서 자신이 책을 읽고 풀이하기 위해서는 그 책이 쓰여진 사회 문화적 상황을 고려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해당 내용은 앞에서 설명한 내용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최종적 내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적절하다.
- ⑤ 독서의 목적, 독서 과제, 독자의 상황 등과 연결하여 의미를 구성한다.
→ (나)의 필자는 글이 쓰여진 시대를 살필 뿐, 목적, 과제, 독자의 상황 등을 연결하여 의미를 구성하고 있지는 않는다.

[3~6] 2008.04 현대시 (가) 윤동주, 또 다른 고향, (나) 박재삼, 흥시를 보며, (다) 김수영, 하루살이

3.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일상의 소중함에 대한 깨달음이 드러나 있다.
→ (가)~(다)에서 일상의 소중함에 대해 다루는 시는 없다.
- ② 내면의 갈등을 극복하려는 다짐을 하고 있다.
→ 내면의 갈등은 '괴로움'을 느끼면 성립된다는 점에서 세 시 모두 성립하지만, (나), (다)에서 내면의 갈등을 극복하려는 다짐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③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은 세 시 모두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 ④ 자신의 삶에 대해 성찰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다.
→ 세 시에서 모두 자신의 삶에 대해 성찰하는 모습이 드러난다. (가)는 풍화하는 백골인 자아를, (나)는 똑똑한 체 잘도 떠드는 모습을, (다)는 감정을 잃어버린 시인으로서의 자신을 성찰하고 있다.
- ⑤ 부정적 사회 현실이 구체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 세 시는 자아 성찰과 관련된 시로, 시에서 부정적 사회 현실이 구체적으로 형상화되어 있지는 않다.

4. [지조 높은 개]와 [말 못하는 식물]의 공통적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기를 인식하게 한다.
② 시간의 경과를 나타낸다.
③ 외로운 심정을 심화시킨다.
④ 신비로운 분위기를 조성한다.
⑤ 대상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한다.

[해설] '지조 높은 개'는 어둠을 짓는 존재로 암울한 현실을 거부하는 존재로 볼 수 있다. (가)에서는 이 어둠을 짓는 개를 부끄러운 자아인 자신을 쫓는 존재로 설정하고 있다. 한편, '말 못하는 식물'은 흥시로 한자리에서 자신의 모습을 열심히 비춘다. 이는 똑똑한 체 잘도 떠들지만, 자신의 모습을 남기지 못하는 자신과 상반되는 존재로 이 두 시어는 모두 자신을 인식하게 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5.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아프게도’는 성장의 어려움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꽃이 지고 열매가 맺는 과정을 ‘아프게도’라는 축각과 관련된 표현을 사용하여 묘사하고 있다. 이는 성장의 어려움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푸른 빛’과 ‘붉은 홍시’의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대상의 성숙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 푸른 빛과 붉은 홍시는 서로 반대되는 색채를 보인다. 이는 푸른 빛에서 서서히 붉어가는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감이라는 대상의 성숙 과정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어느새’는 의도적으로 행을 바꾸지 않은 것으로, 다음 행의 의미에 주목하게 한다.
→ 의도적으로 부사어의 위치를 조정하는 것은 강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어느새’는 ‘오다’를 수식하는 부사어이므로 적절하다.
- ④ ‘자기 모습’을 ‘열심히 비추는 것’은 화자의 입장에서는 성실한 삶의 자세를 의미한다.
→ 하늘에 자신의 모습을 열심히 비추는 감나무의 모습은 똑똑한 체 잘도 떠들지만 자신의 모습을 남기지 못하는 자신과 대비되며 성실한 삶의 자세를 의미하도록 표현한 것이다.
- ⑤ ‘아, 가을!’에는 탈속적 세계를 동경하는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 있다.
→ ‘아, 가을!’에는 성실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홍시와 대비되는 자신에 대한 정서가 집약된다. 이는 탈속적 세계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6. <보기>는 (다)를 감상하면서 생긴 의문점과 그에 대한 토의 내용이다.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의문점	토의 내용
하루살이의 움직임에 대한 시어를 ‘광무→유희→반복→황홀’로 달리 표현한 이유는 무엇일까?	→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변하는 것을 시어의 변화로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 ㉠
2연에서 ‘나는 확실히 하루살이에게 졌다’고 표현한 이유는 무엇일까?	→ 1연에서 ‘일손을 멈추고 무엇을 생각’하던 화자가 3연에서 하루살이의 자연스러움에 감탄하게 되는 것으로 보아 자신의 삶이 하루살이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
3연에서 ‘반복(反復)’과는 다른 ‘반복(反覆)’이라는 한자어를 쓴 이유는 무엇일까?	→ ‘같은 일을 되풀이함’의 뜻을 가진 어휘 대신 ‘본래의 상태로 되돌림, 언행 등을 자꾸 고침’의 뜻을 가진 시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시적 자아의 심정을 드러내려는 것 같아. ㉢
4연에서 ‘감정을 잊어버린 시인’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 열정을 잃어버리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대한 화자의 연민을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아. ㉣
이 시의 구성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일까?	→ 같은 형태의 구절이 매 연마다 반복되며, 대상에 관한 중요한 시어로 각 연을 마무리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인 것 같아. ㉤

- ① ㉠
→ 처음에는 화자는 하루살이의 움직임을 미친 춤으로, 그다음에는 즐거움으로, 그 다음에는 삶을 수정하는 행위로, 그 다음에는 황홀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화자는 대상인 하루살이에 대한 태도가 변화하고 있고 이것이 시어로 드러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
→ 2연에서 화자는 하루살이에게 졌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후 3연에서 화자는 하루살이의 모습과 몸짓의 자연스러움에 감탄하고 있다. 따라서 하루살이에게 자신이 진 부분은 그 자연스러움에 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 ③ ㉢
→ ‘반복(反復)’은 그저 삶을 되풀이할 뿐이지만, ‘반복(反覆)’은

언행등을 자꾸 고치는 행위를 통해 현재의 삶을 수정하고 싶은 화자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이다. 따라서 적절하다.

④ ㉠

→ 화자는 감정을 잊어버린 시인인 자신과 하루살이를 대비하고 있다. 즉, 화자가 연민을 느끼는 대상은 세상 사람들이 아닌 화자 자신이다.

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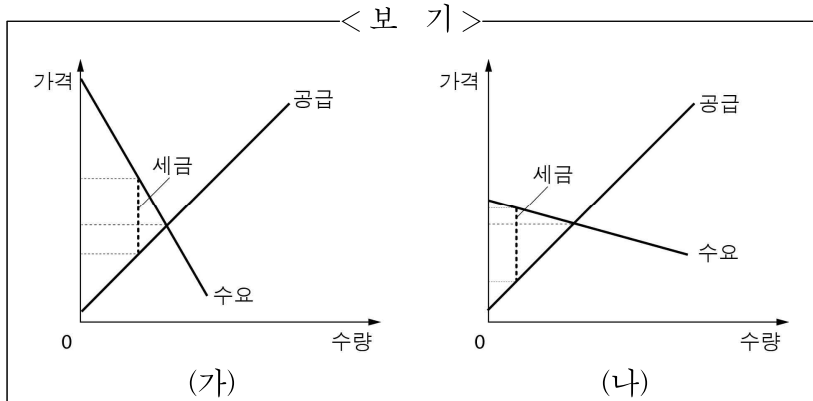
→ 각 연마다 '하루살이의 ~여'라는 구절로 마무리되며 시를 안정감 있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7~10] 2015.10B 사회

7.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조세의 개념과 의미가 변천해 온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 글 전체에서 조세의 개념을 다루고 있기는 하나, 의미가 변천해 온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② 조세의 유형과 특성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제시하고 있다.
→ 1문단에 따르면 윗글에서 다루는 조세의 유형은 상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뿐이다. 또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고 있지도 않다.
- ③ 조세 부과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관련 개념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다.
→ 윗글은 3, 4문단에서 조세 부과로 인해 감소하는 경제적 순손실과, 가격탄력성에 따라 달라지는 경제적 순손실에 대해 다루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④ 조세 부과에 대한 상반된 이론을 소개하면서 각각의 의의와 한계를 밝히고 있다.
→ 조세 부과에 대해 상반된 이론이라고 보려면 최소 2개의 이론이 등장하여야 한다. 윗글에서는 2개 이상의 이론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⑤ 조세 부과에 따른 문제점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그 해결책을 제안하고 있다.
→ 3, 5문단에서 조세 부과로 인해 감소하는 경제적 순손실에 대해 다루고 있지만,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8.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가), (나)를 해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나)는 동일한 크기의 세금이 부과된 상태이다. 세금 부과 이전의 (가), (나)의 균형 거래량은 동일했다. (가), (나)의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동일하지만, (가), (나)의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다르다.

- ① 생산자 잉여는 (가)가 (나)보다 더 크다.
→ 생산자 잉여는 공급곡선, y축, 판매자가 받는 가격을 각 변으로 하는 삼각형의 크기에 해당한다. 이 크기는 (가)가 (나)보다 크다. 따라서 적절하다.
- ② 정부의 조세 수입은 (나)가 (가)보다 더 크다.
→ 3문단에 따르면 조세 수입은 (세금)×(변화된 거래량)이다. 이 크기는 (가)가 (나)보다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더 크다.
- ③ 구입자가 부담하는 조세는 (가)가 (나)보다 더 크다.
→ 구입자가 부담하는 조세는 (구매자가 받는 가격-균형가격)×(변화된 거래량)이므로 이 크기는 (가)가 (나)보다 더 크다.
- ④ 세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순손실은 (나)가 (가)보다 더 크다.
→ (가)와 (나)의 차이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다. 4문단에 따르면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경제적 순손실이 크므로 적절하다.
- ⑤ (나)의 수요는 (가)의 수요보다 가격 변화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다.
→ (나)의 수요곡선의 기울기는 (가)의 수요곡선의 기울기보다 완만하다. 4문단에 따르면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가격 탄력성이 크다. 그리고 가격이 조금만 변해도 수요량과 공급량이 크게 변화하는 것을 가격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하고 가격 탄력성이 크다고 하므로 적절하다.

9. 윗글을 바탕으로 하여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부가 가치세는 모든 재화나 서비스에 단일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소비에 비례하여 세금 부담의 정도가 높아진다. 저소득층일수록 소득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부가 가치세로 인한 저소득층의 조세 부담은 크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저소득층의 소비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가격에 따른 수요량 변화가 크지 않은 식료품, 의약품 등의 생활필수품에서는 부가 가치세를 면세하고 있다. 최근 부가 가치세 면세 범위 조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① 생활필수품에 대하여 부가 가치세를 면세해 준 것은 생활필수품에 대한 저소득층의 소비자 잉여가 감소하지 않게 한 것이겠군.
→ 생활필수품에 대해 부가 가치세를 면세하면, 생활필수품에 대해서는 소비자 잉여가 감소하지 않는다. 즉, 이는 소득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저소득층의 소비자 잉여가 감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 ② 가격 탄력성이 큰 상품들까지 부가 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 되도록 면세 범위를 넓히면 그 상품들의 생산자 잉여가 감소하겠군.
→ 어떠한 형태로든 부가 가치세의 면세는 생산자 잉여가 감소하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 ③ 부가 가치세의 부과 대상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부가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는 입장이겠군.
→ 5문단에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세금 부과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가 가치세 부과 대상을 늘리는 것은 세금 부과를 늘리는 행위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④ 모든 재화나 서비스에 단일 세율을 적용해 부가 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시장에서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겠군.
→ 3문단에 따르면 어떠한 형태로든 경제행위에 조세를 부과하는 것은 경제적 순손실을 야기한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 ⑤ 저소득층의 소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생활필수품에 부가 가치세를 부과하면 그 상품에 대한 저소득층의 소비가 늘어나 정부의 조세 수입은 감소하겠군.
→ 4문단에 따르면 조세가 부과될 경우 거래량은 기존보다 감소한다. 따라서 소비가 늘어나는 것이 아닌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10.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찾아 바르게 짝지은 것은?

— < 보 기 > —

- ㄱ. 공급자와 수요자가 시장에 참여하여 얻게 되는 이득이 줄어들게 된다.
 ㄴ. 시장 거래량이 세금 부과 이전의 균형 거래량보다 줄어들게 된다.
 ㄷ. 구입자가 내는 가격이 세금 부과 이전의 균형 가격보다 낮아진다.
 ㄹ. 정부의 조세 수입이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감소분의 합보다 커진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해설] ㉠의 상황은 세금이 부과되어 생산자와 소비자가 받는 잉여가 감소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ㄱ의 설명은 적절하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받는 잉여가 감소한 것은 세금으로 인해 소비자가 내는 가격이 상승하고, 공급자가 받는 가격이 감소하여 균형거래량보다 거래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즉, 세금으로 인해 시장 거래량이 세금 부과 이전의 균형 거래량보다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ㄴ은 적절하다.

앞서 소비자는 세금으로 인해 구매 가격이 상승한다고 하였으므로 ㄷ은 오답이다.

윗글에서 3문단에 따르면 정부의 조세 수입은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감소분의 합보다 항상 작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11~13] 2010.03 과학

11. 윗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텔로미어란 무엇인가
 - DNA 구조의 규명을 중심으로
 → 지문 전체에서 텔로미어에 대해 다루고 있고, 1문단에서 나선형의 DNA의 구조에 대해 다루고 있지만, 글의 핵심이 DNA 구조의 규명에 있다기보다는 1문단에서 시작하여 5문단에서 맺으며 연결되는 내용이 노화와 암에 있기에,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② DNA 관련 질병 치료의 신기원
 - 텔로미어의 효율적 생성 기술을 중심으로
 → 윗글에서는 텔로미어의 효율적 생성 기술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는 않다.
- ③ 노화와 암 치료의 열쇠
 - 텔로미어와 텔로머라아제의 역할을 중심으로
 → 지문에서 노화와 암 치료와 관련된 소재로 텔로미어를 선택하고 그와 관련된 텔로머라아제를 함께 다루고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 ④ 수명 연장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
 - 텔로미어와 텔로머라아제 관련 기술을 중심으로
 → 지문에서는 텔로미어와 텔로머라아제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을 뿐, 그와 관련된 기술을 다루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 ⑤ 텔로미어는 DNA의 수호자
 - 유전 정보 보존을 위한 방법 마련을 중심으로
 → 유전 정보의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텔로미어가 존재한다는 점을 4문단에서 언급하고 있더라도, 지문에서 다루는 핵심 내용은 노화와 암과 관련된 내용이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12. <보기>의 진술 중에서 텔로미어에 대한 것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 보 기 >

ㄱ. DNA의 일부이다.
 ㄴ. DNA의 길이를 늘린다.
 ㄷ. 유전 정보의 손실을 예방한다.
 ㄹ. 세포분열의 횟수를 늘려 준다.
 ㅁ. 세포분열이 거듭될수록 길이가 짧아진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ㅁ ⑤ ㄴ, ㄹ, ㅁ

[해설]

ㄱ. 4문단에서 DNA의 끝부분에 유전 정보가 들어있지 않은 짧은 길이의 사슬을 텔로미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텔로미어는 DNA의 일부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ㄷ. 4문단에서 텔로미어는 DNA의 끝부분에 붙어 정보의 손실을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ㅁ. 4문단에 따르면 텔로미어도 세포분열이 반복될수록 그 길이가 짧아진다고 언급하고 있다.

ㄴ. 텔로미어는 DNA에 붙어있는 것으로 DNA의 일부이다. 따라서 텔로미어가 그 자체로 DNA의 길이를 늘리는 것으로 볼 수 없다.(DNA의 각 염기가 DNA의 길이를 늘린다고 보지 않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 해당 설명은 텔로머라아제에 대한 DNA 끝에 붙여서 텔로미어 전체의 길이를 늘린다고 한다. 텔로미어의 길이가 길어지는 것은 곧 DNA의 길이를 늘리는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텔로미어에 대한 설명으로 볼 수 없다.
 ㄹ. 5문단에 따르면 세포분열의 횟수는 텔로미어의 길이에 따라 결정된다. 그리고 6문단에 따르면 암세포의 텔로미어는 세포가 분열해도 줄어들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이것의 이유가 텔로머라아제의 활성화에 있다고 설명한다. 즉, 텔로머라아제는 정해져 있는 세포분열의 횟수보다 더 많은 세포분열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이 역시 텔로머라아제와 관련된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13. 윗글에서 영감을 얻은 작가가 <보기>의 영화를 제작했다고 할 때, 영화 속 상황을 추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영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는 늙은 상태로 태어나 아기가 돼 죽음을 맞는다는 상상력으로 관심을 모았다. 검버섯이 핀 피부, 안경 없이는 볼 수 없는 나쁜 시력. 1918년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태어난 아이(벤자민 버튼)는 외모가 노인 같았다. 벤자민의 괴상한 외모에 놀란 아버지는 ‘노인 아이’를 한 양로원 앞에 버린다. 그의 나이 12살. 해가 지날수록 자신이 젊어진다는 것을 발견할 때쯤 벤자민은 할머니를 찾으러 양로원에 온 6살 꼬마 데이지를 만난다. 만나고 헤어지기를 수차례. 벤자민과 데이지는 마침내 함께하게 되지만 그는 날마다 어려워지고 데이지는 늙어만 간다.

- ① ‘데이지’의 할머니는 전구세포들의 텔로머라아제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라고 해야겠지.
 → 데이지의 할머니는 임신이 불가능한 노인이다. 전구세포는 난자를 만드는 세포이므로 난자의 텔로머라아제는 활성화되지 않았을 것이다.
- ② 작가는 일반 세포 속 텔로미어가 길어지면 사람이 육체적으로 젊어진다고 설정한 것으로 보여.
 → 6문단에 따르면 정상인은 일반 세포 속 텔로머라아제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텔로머라아제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텔로미어는 세포 분열 때마다 길이가 짧아지므로 정상적이지 않은 벤자민 버튼의 상황은 일반 세포 속 텔로미어가 길어지는 상황을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 ③ 성인이 된 ‘데이지’의 일반 세포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염색체의 텔로미어 길이가 짧아졌을 거야.
 → 4, 5문단에 따르면 텔로미어는 세포 분열 때마다 짧아지고 일정 길이 이하로 짧아지면 노화현상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적절하다.
- ④ 6살 꼬마 ‘데이지’의 경우 일반 세포 속 텔로미어의 길이는 당시 ‘벤자민’의 경우보다 짧다고 봐야 해.
 → 6살 꼬마인 데이지를 만났을 때는 벤자민은 ‘노인’이었다. 즉, 데이지는 텔로미어가 상당히 긴 상태였을 것이고 노화가 진행된 벤자민은 텔로미어가 짧아진 상태였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 ⑤ 태어난 직후의 ‘벤자민’은 세포의 텔로미어 길이가 노화점 부근에 머물러 있었다고 가정한 것으로 보여.
 → 벤자민은 태어난 이후로 어려워지기 시작했으므로 태어났을 당시에는 텔로미어의 길이가 노화점 부근에 존재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14~17] 2019.04 작자미상, 속영남자전

1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물의 독백을 통해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상공이 남자의 방에서 남자의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혼자 말하며 의혹과 분함을 느꼈으므로 적절하다.
- ② 꿈과 현실의 교차를 통해 환상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꿈과 현실의 교차는 등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 ③ 인물들 간의 대화를 통해 인물들 간의 갈등을 제시하고 있다.
→ 중략 부분 이후 상공이 남자를 심문하며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 ④ 서술자의 개입을 통해 사건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드러내고 있다.
→ ‘누명을 벗기~어찌 더 살 뜻이 있으리오’와 ‘그 불쌍하고~볼 수 없더라’에서 서술자의 개입이 드러나며, 주관적인 평가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⑤ 인물의 모습에 대한 묘사를 통해 그 인물이 처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꽃처럼 고운 남자의 얼굴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눈처럼 하얀 피부에서는 피가 샘처럼 솟아났다’라는 묘사에서 남자가 처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15. 윗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선군’은 ‘남자’가 당부한 말을 지키기 위해 집으로 돌아왔다.
→ 남자는 선군에게 집으로 돌아오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 ② ‘선군’의 요청에 따라 ‘남자’는 자신의 용모를 그린 그림을 ‘선군’에게 주었다.
→ 남자가 선군에게 자신의 용모를 그린 그림을 주었으나, 이는 선군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 ③ ‘상공’이 ‘선군’을 꾸중할 것이 걱정되어 ‘남자’는 ‘매월’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 남자가 매월과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은 지문에서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 ④ ‘선군’이 방문한 사실을 ‘상공’에게 숨기기 위해 ‘남자’는 ‘아이’를 달래는 척했다.
→ 남자는 상공이 문밖에 온 것을 알고 선군이 방문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아이를 달래는 척을 했다.
- ⑤ ‘상공’은 ‘매월’이 최근에 ‘남자’의 방에 가지 않은 것을 질책하기 위해 ‘매월’을 불렀다.
→ 상공은 남자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매월을 불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16.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숙영낭자전」에는 남성에게는 입신출세가, 여성에게는 정절이 요구되던 당대의 자유롭지 못한 삶의 모습이 드러난다. 당시의 여성들은 폭력적 억압을 당하기도 했는데, 비극적 삶을 살아가던 여성들은 부부간의 애뜻한 사랑을 꿈꾸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억압된 욕망을 표출하기도 했다.

- ① 낭자가 '선군을 위로하'고 선군이 슬퍼하며 '숙소로 돌아가는 것'에서 부부간의 애뜻한 사랑이 드러나고 있군.
→ 선군은 낭자가 보고 싶어 두번이나 집으로 돌아왔으나, 낭자가 선군을 위로하고, 선군이 슬퍼하며 숙소로 돌아가는 것으로 보아 부부간의 애뜻한 사랑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 ② 낭자가 '상공의 명'에 의해 '밤낮으로' '방을 감시'당하는 것에서 여성들의 자유롭지 못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군.
→ 상공의 명에 의해 낭자는 매월매에 의해 방을 감시당한다. 이는 여성들의 자유롭지 못한 모습으로 볼 수 있다.
- ③ 낭자가 '하인들'에게 '매질'을 당하는 것에서 폭력에 희생당하는 여성의 비극적 삶이 드러나고 있군.
→ 상공의 명에 의해 낭자가 하인들에게 매질을 당하는 것은 폭력적 억압을 당하는 여성의 비극적 삶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 ④ 선군이 낭자와 이별하기 싫어함에도 '과거 보러 떠나'는 것에서 입신출세가 요구되는 남성의 삶이 드러나고 있군.
→ 선군이 낭자와 이별하고 싶지 않아 오십리를 가서 숙소를 정하고 밤에 돌아가면서도 결국 과거를 보기 위해 떠나는 모습은 입신출세가 요구되는 당대의 자유롭지 못한 남성의 삶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
- ⑤ 낭자가 상공의 꾸짖는 말을 듣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는 것에서 선군에 대한 정절을 지키지 못해 고난을 겪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군.
→ 낭자는 외간 남자를 만난 적이 없으므로 선군에 대한 정절을 지켰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17. ㉠에 드러나는 '낭자'의 심리를 표현한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각골통한(刻骨痛恨)
→ ㉠은 낭자에게는 잘못이 없음에도 누명을 쓴 것에 대해 원통함을 느끼며 하는 말이다. 따라서 '뼈에 사무치게 맺힌 원한'을 뜻하는 '각골통한(刻骨痛恨)'이 적절하다.
- ② 맥수지탄(麥秀之嘆)
→ 맥수지탄(麥秀之嘆)은 '고국의 멸망을 한탄함'의 의미로 ㉠의 내용과는 적절하지 않다.
- ③ 수구초심(首丘初心)
→ 수구초심(首丘初心)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의 의미로 ㉠의 내용과는 적절하지 않다.
- ④ 이심전심(以心傳心)
→ 이심전심(以心傳心)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뜻이 통함'의 의미로 ㉠의 내용과는 적절하지 않다.
- ⑤ 풍수지탄(風樹之嘆)
→ 풍수지탄(風樹之嘆)은 '효도하고자 할 때에 이미 부모를 여의고 효를 다하지 못하는 자식의 슬픔'의 의미로 ㉠의 내용과는 적절하지 않다.